



태광산업에 대한 공개주주서한

트러스톤자산운용

2026. 02.

본 자료는 당사가 특정 기업 및 관련 사안에 관하여 제언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 분석, 추정, 전망 및 의견은 작성 시점에 당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공개 자료 및 가정에 근거하였으나, 그 정확성·완전성·적시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 법률, 세무 등 전문적 자문 또는 특정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독자는 본 자료를 참고함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사용 또는 이에 근거한 의사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의 내용 및 의견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당사에 있으며, 출처 표기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변형·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금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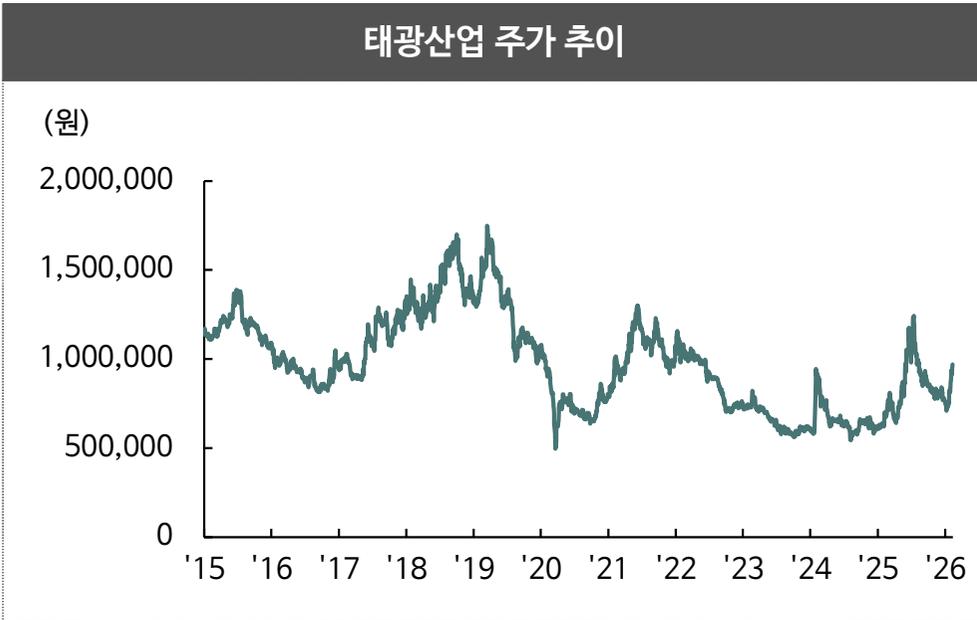
태광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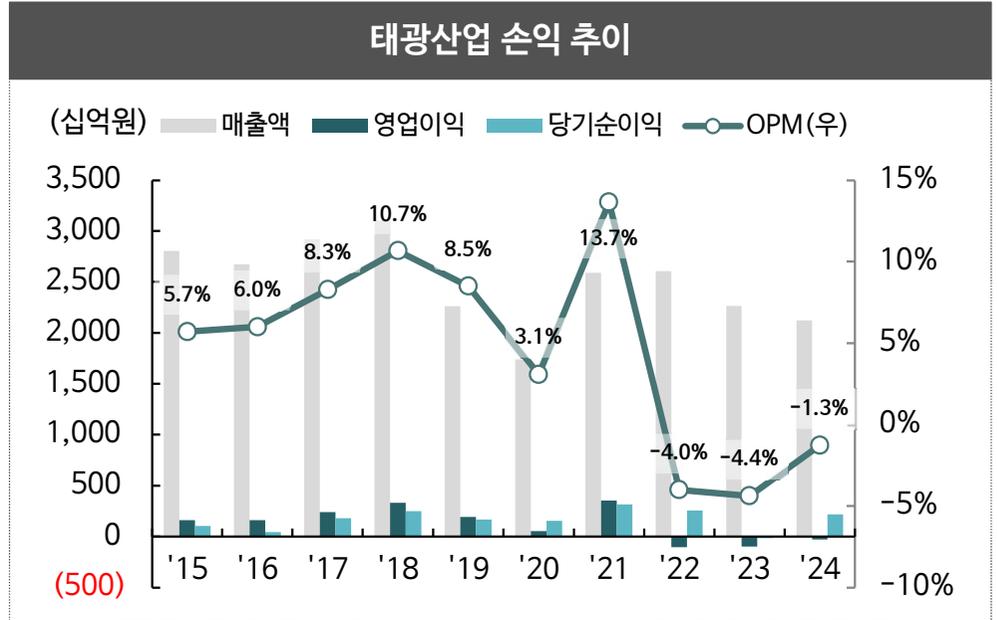
(기준일 : 2026.02.11)

태광산업	
시가총액 (십억원)	1,056
현재주가 (원)	948,000
총발행주식수	1,113,400
PBR (배, 3Q25)	0.20
ROE (% , 3Q25, TTM)	-0.07
섹터구분	화학
3개월 간 일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1.62

주요 주주	지분율 (%)
이호진	29.5
티알엔	11.2
일주세화학원	5.0
이원준 등	8.8
트러스톤자산운용	1.7
오케이캐피탈	3.2



Source: Quantiwise, 트러스톤자산운용



Source: Quantiwise, 트러스톤자산운용

Executive Summary (1)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저 PBR회사 태광산업의 2대주주 트러스트자산운용-OK캐피탈의 대표자 트러스트자산운용입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태광산업에 투자해온 장기투자자이며, 스투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 기관투자자로서 8년 동안 비영업용자산의 효율적 활용, 보유 자사주 24.4%의 소각, 주주정책의 수립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2022년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목적은 변경한 이후 2022년 흥국생명 유상증자, 2025년 보유 자사주 전량 EB발행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태광산업에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태광산업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주주의 제안 뿐 아니라 태광산업의 현·전임 이사들도 회사에 주주정책의 필요성, 적정배당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던 대표이사는 해임되었고, 주주가치 제고를 주장하던 감사위원장 역시 해임되었습니다.

당사는 태광산업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가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려 한다고 판단합니다. 25년 4월 자산주로 태광산업이 주목받아 주가가 오르자 태광산업은 갑작스레 보유자사주 전량에 대한 EB를 발행을 시도하였고 시장은 차가운 반응으로 응답했습니다. 태광그룹의 비상장회사들은 33%의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상장회사들의 배당성향은 10년 평균 1%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인 성수동 연무장길 내 1개 블록 약 4,000평의 부지가 태광산업 소유임을 아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1조원 가치의 해당 부동산 자산 외에도 과거 동북고등학교였던 태광산업 본사 부지, 5만㎡ 가량의 부산 구서동 부지 등 태광산업이 보유한 알짜 부동산 가치는 약 4조원에 달합니다.

해당 부동산 자산들에 대한 개발 혹은 처분을 2020년부터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전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태광산업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결과, 태광산업의 PBR은 약 0.20배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공정 가치를 반영한 실질 PBR은 0.17배에 불과합니다.

태광산업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았으면서도 자본시장에 어떠한 이득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룰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태광산업이 지배주주의 상속세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사는 태광산업의 주주이자, 자본시장의 파수꾼의 의무를 부여 받은 기관투자자로서 태광산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태광산업이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환원하고 상장폐지할 것을 주주제안합니다.

- 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 태광산업에 유통주식 수량 전부에 대한 자사주 매입 안건을 주주제안하였습니다.

태광산업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가 해당 안건을 거부하고 상장사로서 남아있는 것을 선택한다면, 당사는 태광산업에게 상장사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 주주정책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이사회 독립성 제고 및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을 위한 **분리선출 독립이사 2인 선임**
 - 개정상법 반영 위한 분리선출 2인 확대 및 합산 3%를 도입 정관 변경의 건
2. **선임독립이사 제도 도입의 건**
3. 성수동 연무장길 부지 등 **핵심 부동산 자산 매각 혹은 개발**
 - **이를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정관 변경의 건
4. 보유 자사주 24% 중 **20%의 소각**
5. **기업가치제고계획 수립 및 발표**
6. 낮은 주식 유동성 해소를 위한 **1:50 액면분할**

01

태광산업이
유통주식을 자사주 매입하여
상장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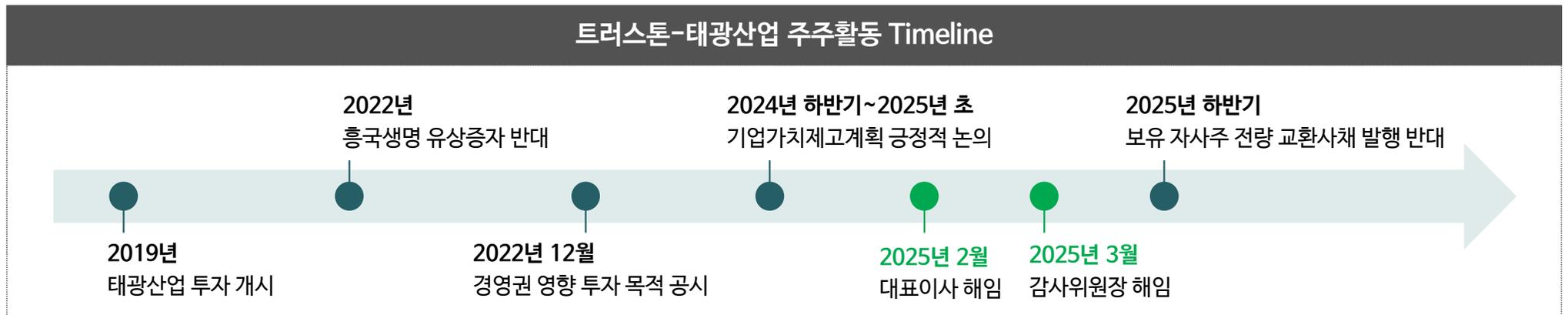


유통주식을 자사주 매입하여 상장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태광산업에 투자해온 장기투자자이며, 스투어드십코드를 준수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 8년 동안 비영업용자산의 효율적 활용, 보유 자사주 24%의 소각, 주주정책의 수립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 당사가 공개주주활동을 개시한 2022년 이후, 2022년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 2025년 보유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등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태광산업에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또한 당사는 태광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난 8년 동안 태광산업과 소통해왔습니다.
- 하지만 태광산업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태광산업의 현·전임 이사들도 주주와 뜻을 같이 하여 회사에 주주정책의 필요성, 적정 배당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추진하던 대표이사는 해임되었고, 태광산업에 주주가치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감사위원장 역시 해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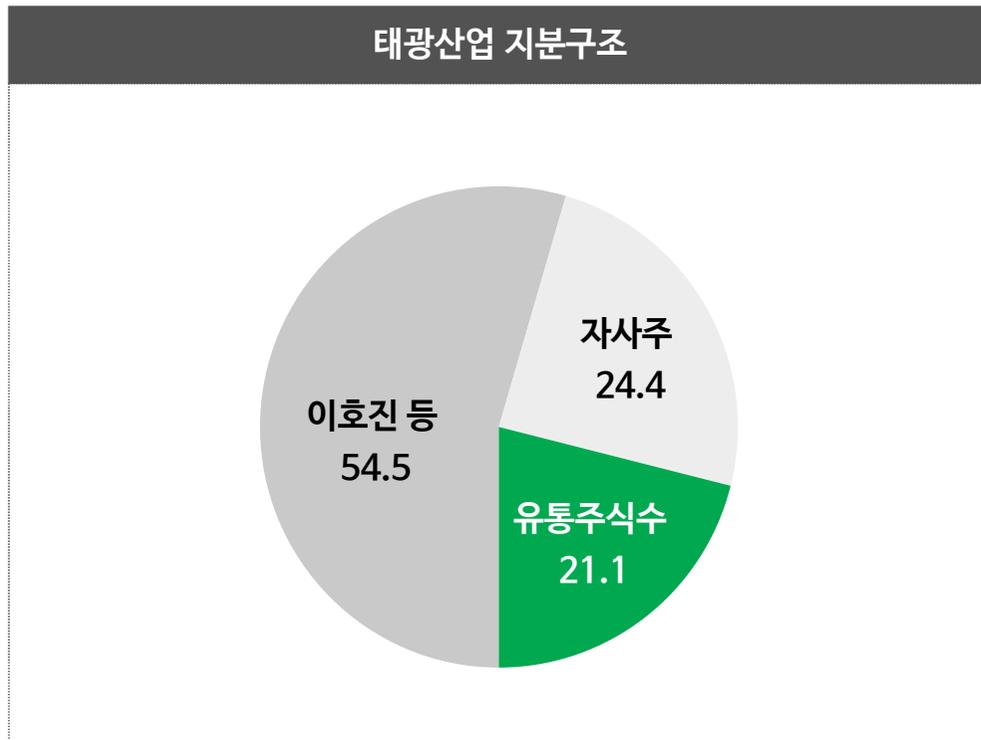


유통주식을 자사주 매입하여 상장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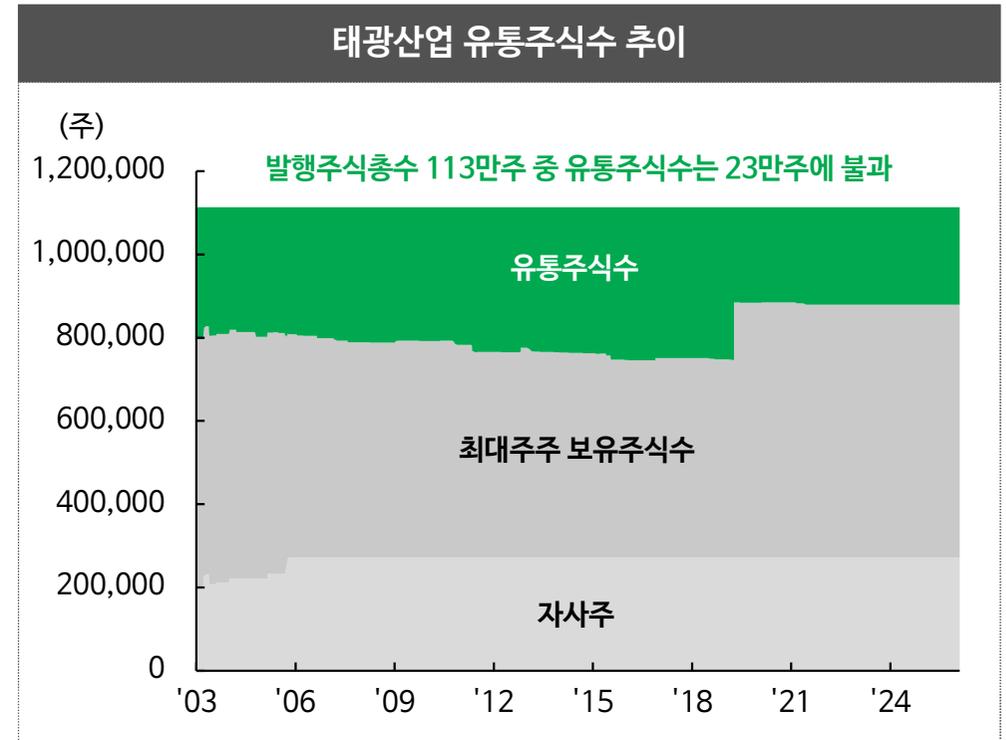


당사는 태광산업의 소수주주로서, 태광산업 및 태광산업의 지배주주에게 더 이상 소수주주를 괴롭히지 말고, 소수주주 몫의 유통주식수량 23만주 전부를 자사주 매입하여 자진 상장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 태광산업은 총 1,113,400주를 발행하였으며, 그 중 자사주가 271,769주, 최대주주가 607,122주를 보유하고 있어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는 234,509주(21.1%)에 불과합니다.



Source: 트러스톤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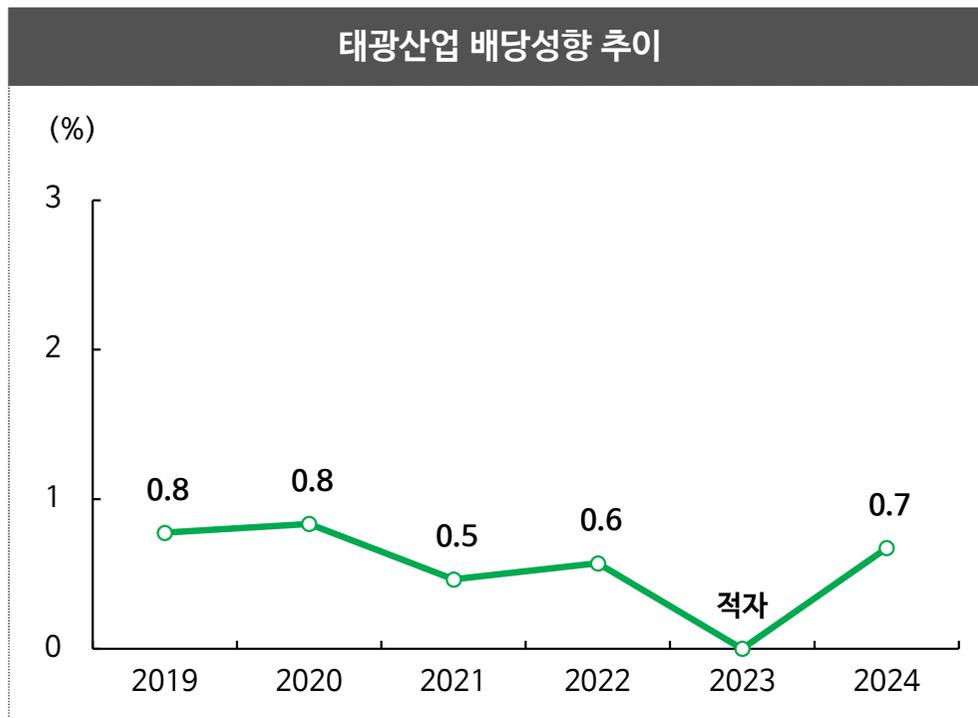
Source: 트러스톤자산운용

유통주식을 자사주 매입하여 상장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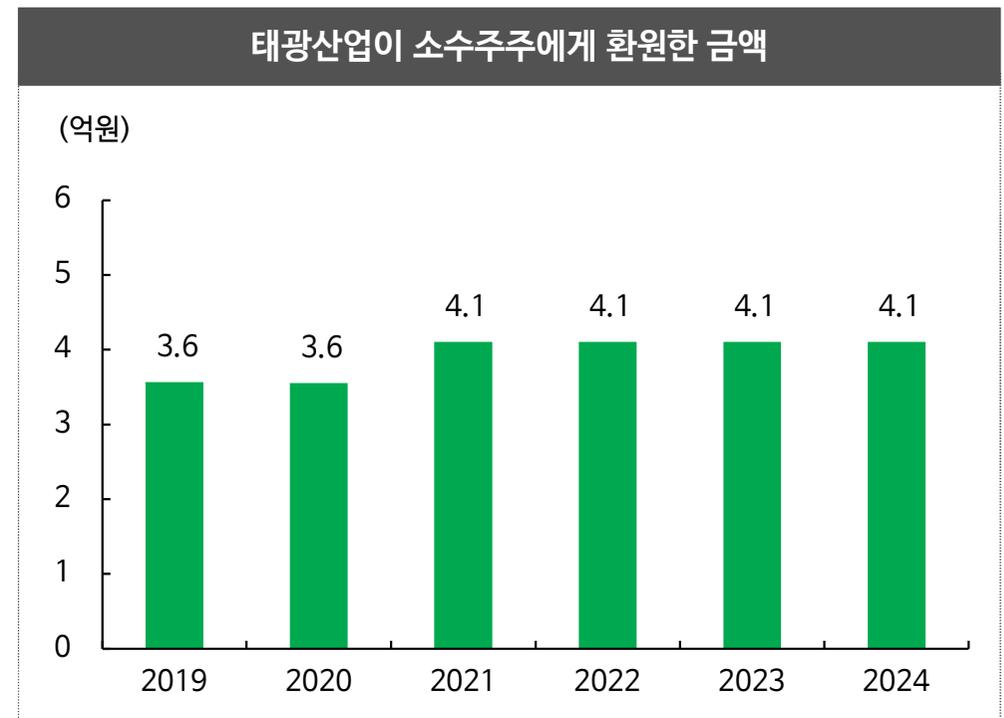


태광산업은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주주에게 극도로 인색한 경영을 지속해왔습니다.

- 태광산업의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평균 1.1%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19년 이후 1%를 넘지 않았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태광산업이 소수주주의 몫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1년에 고작 **4억원에 불과**합니다.
- 반면, 태광산업이 시너지가 불분명한 M&A에 투입하거나 투입하려 했던 금액은 총 **1.5조**에 달합니다.



Source: 트러스톤자산운용



Source: 트러스톤자산운용

유통주식을 자사주 매입하여 상장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광산업은 당사를 비롯한 소수주주들 뿐만 아니라 태광산업의 독립이사들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 3년 전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는 주주환원의 상징적 측면에서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제안하였습니다만, 당시 이호진 지배주주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태광산업은 보유하던 SK브로드밴드 지분을 매각하고 시가총액에 달하는 현금 8천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소수주주와 심지어 독립이사들까지, 매각대금의 일부 환원을 요구했음에도 태광산업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태광산업은 시가총액의 2.4배에 달하는 투자자산과, 4배에 달하는 자본을 가진 유일무이한 상장사가 되었습니다.

태광산업 SK브로드밴드 지분 매각 공시 (2025.05.14.)

1. 거래의 개요

구분	내용
발행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양도주식수	67,352,565주
양수인	에스케이텔레콤(주)
양도금액	777,641,796,38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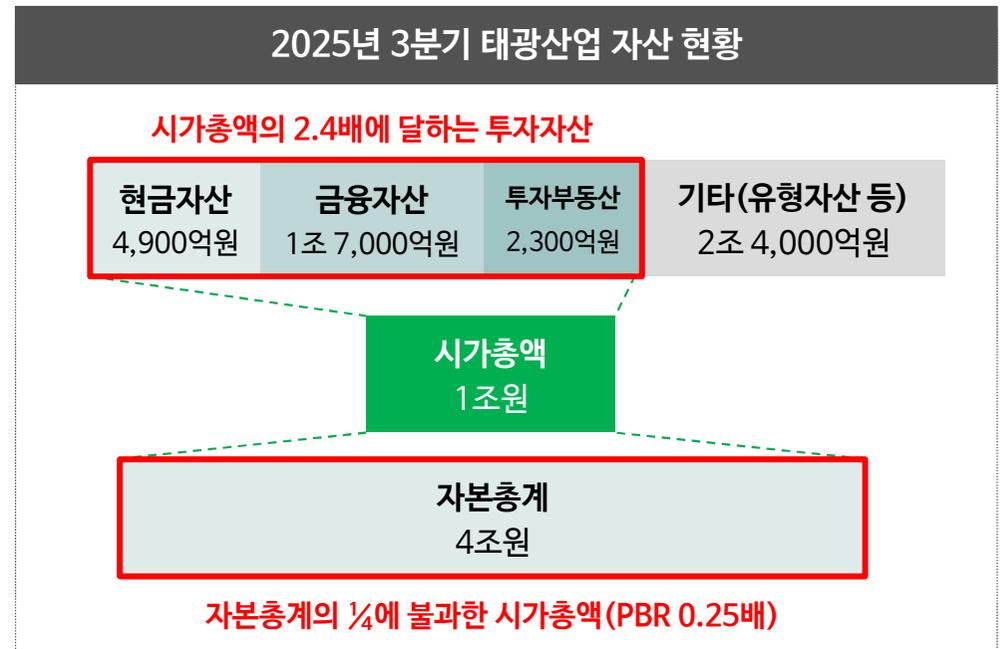
2. 주요진행일정

구분	일자
외부평가기간	2024년 11월 05일 ~ 2024년 11월 13일
이사회결의일	2024년 11월 13일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2024년 11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4년 11월 13일
대금수령일 / 거래종료일	2025년 05월 14일

3. 대금수령방법

구분	수령일	수령금액	수령방법
거래종료일	2025년 05월 14일	777,641,796,381원	현금일시불

Source: DART, 트러스톤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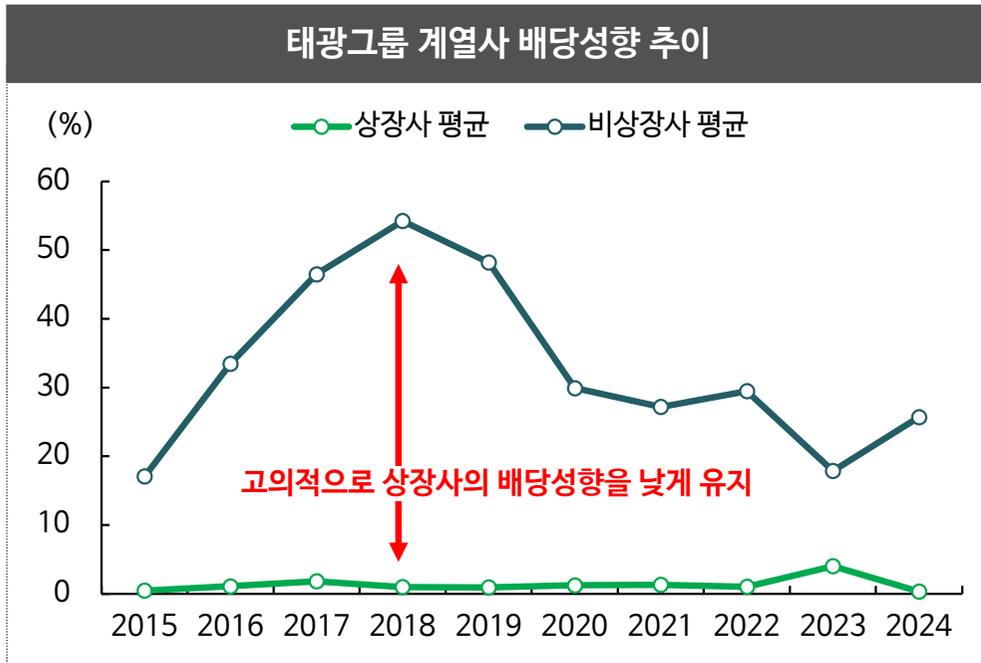
Source: DART, 트러스톤자산운용

유통주식을 자사주 매입하여 상장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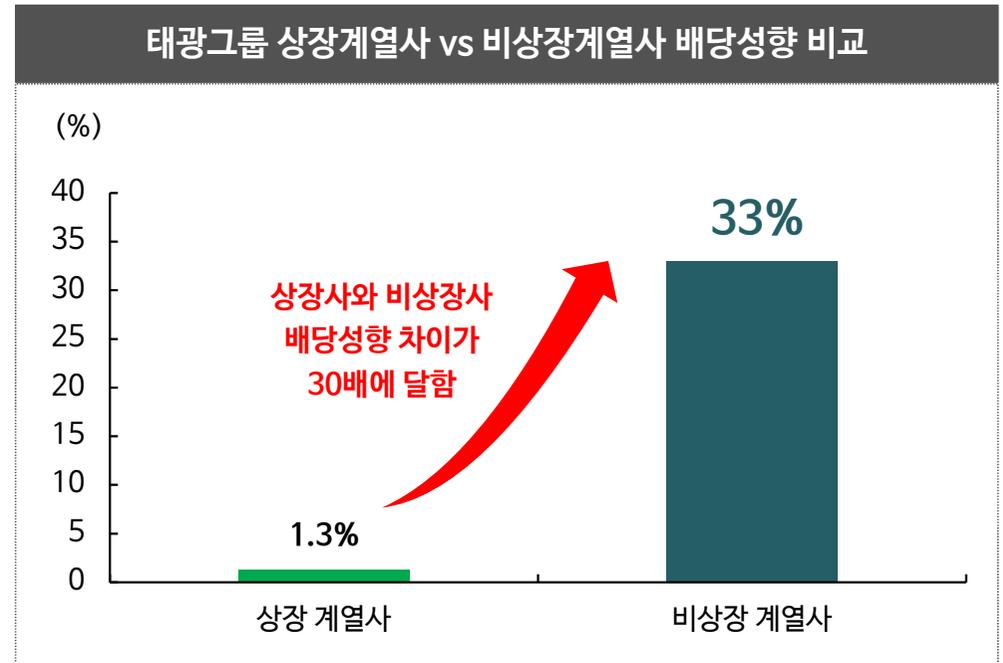


태광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태광그룹의 고의적 행위입니다.

- 태광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고의적 행위입니다.
- 이는 태광그룹 산하의 상장 계열사들과 비상장 계열사들의 배당성향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태광그룹의 상장 계열사인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화재의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1.3%**에 불과하지만, 비상장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흥국자산운용의 배당성향은 **33%**로 그 차이가 30배에 달합니다.



Note: 상장 계열사 -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화재해상보험
 비상장계열사 - 흥국생명보험,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흥국자산운용
 Source: DART, 트러스트자산운용



Note: 상장 계열사 -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화재해상보험
 비상장계열사 - 흥국생명보험,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흥국자산운용
 Source: DART, 트러스트자산운용

본 자료에 기재된 현황에 대한 설명 등은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향후 지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을 자사주 매입하여 상장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태광산업이 상장을 유지할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 기관투자자인 당사 및 개인 소수주주들과의 분쟁을 겪으면서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도, 태광산업이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상장을 통한 상속세 절감**에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대통령 및 여당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태광산업과 같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기업들은 더 이상 상장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사는 태광산업 및 태광산업 지배주주에게
더 이상 소수주주를 괴롭히지 말고,
소수주주 몫의 유통주식수량 전부를 자사주 매입하여 자진 상장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02

태광산업이
상장사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출 이사 2인 선임을 제안합니다.



태광산업의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눈치만 보다가 주주와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 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인 2025년 6월 27일 태광산업 이사회는 보유 자사주 24% 전량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 태광산업은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도 인수상대방을 확정하지 않아** 금융감독원 정정명령을 받았고, 교환사채 발행 철회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개정 상법 회피 시도로 국회 및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발행상대방 누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소통 의지조차 없는 태광산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융감독원 정정명령 부과 (2025.07.01.)

정정 명령 부과

◇ 정정 명령 부과

2025.6.27.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2025.7.1. 정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투자참고사항

이에 따라 **교환사채권 발표** 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규 : 자본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태광산업(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누락
3. 불성실공시 내용	-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25.06.27)의 철회 ('25.11.24) - 자기주식 처분 결정('25.06.27)의 철회 ('25.11.24)
4. 지정·부과일자	2025-12-16

Source: DART, 트러스톤자산운용

개정 상법의 주주 보호 취지를 외면한 이사회의 형식적 공시 승인

2025년 6월 27일

- 태광산업,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공시

2025년 6월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포함 상법 개정안 다수 발의

2025년 7월 1일

- 금융감독원 정정명령 부과

Source: 트러스톤자산운용

1.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출 이사 2인 선임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태광산업의 이사회는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당시, 당사의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된 두 명의 독립이사 김우진, 안효성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진이 발행상대방도 미정인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에 찬성하였습니다.
- 2023년 11월, 태광산업은 ESG경영을 하겠다며 ESG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거버넌스 리스크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SG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전체 주주를 대표하고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일부 독립이사들은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은 끝내 무산되었으나, 태광산업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시도 및 이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태광산업의 이사회가 얼마나 경영진 견제 기능이 부족한지, 얼마나 독립성이 취약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1.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출 이사 2인 선임을 제안합니다.



분리선출 독립이사 2인의 선임을 제안합니다.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채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사 소속 윤상녕 변호사를 분리선출 독립이사 후보로 주주제안합니다.
 - 채이배 후보는 공인회계사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및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력을 가졌으며,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법사위 등에서 활동하며 공정경제 3법 초석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채이배 후보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생당) (2020.02.~05.),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 (2022.03.~06.)

- 윤상녕 후보는 변호사로, 당사의 주주권행사팀장 및 운용역으로 재직 중이며, 태광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상녕 후보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트러스트자산운용 (2022.10~현재)

1.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출 이사 2인 선임을 제안합니다.



개정 상법의 취지에 맞는 태광산업의 이사회 변화를 요구합니다.

- 분리선출 독립이사를 2인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는 2026년 9월부터,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당사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라는 개정상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 2인이 이사회에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 이에 분리선출 독립이사를 2인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를 도입하는 정관변경의 안건을 제안합니다.



2026년 주주총회에서 당사 추천 분리선출 독립이사 2인의 선임을 제안합니다.

1.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출 이사 2인 선임을 제안합니다.



태광산업의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를 요구합니다.

- 태광산업의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당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후보의 추천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 진행과정 및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합산 3%룰이 시행된 이후 독립성 저해 요소가 있는 독립이사들에 대해 해임을 통해 불신임하고 재선임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힙니다.

2. 선임독립이사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선임독립이사 제도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독립이사를 대표하는 선임독립이사를 뽑아 적절한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독립이사에 의해 선임된 선임독립이사는 ‘독립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사회 의장, 경영진, 독립이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여, 소수주주와 이사회 간의 소통 및 독립이사의 감독 기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기아, 롯데 등)들이 선임독립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태광산업은 현재 유태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태광산업 이사회의 독립성, 독립이사의 관리·감독 역할 강화를 위해 선임독립이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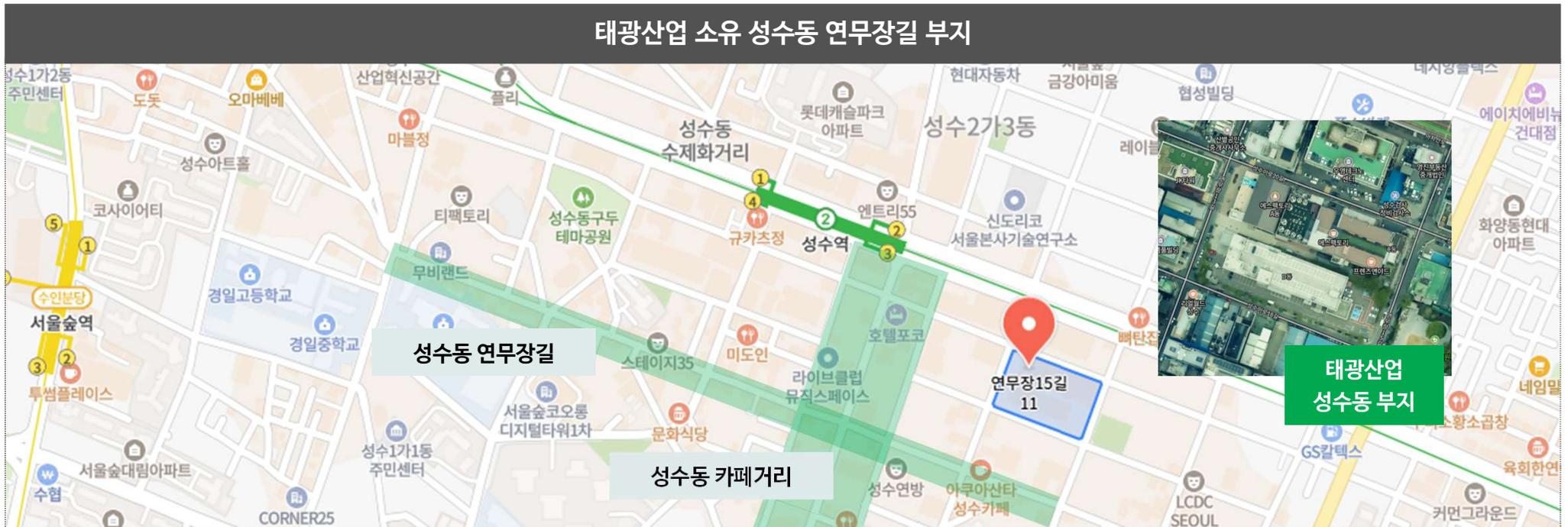


**태광산업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독립이사의 관리 및 감독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선임독립이사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3. 성수동 연무장길 부지 등 부동산 자산의 매각·개발을 제안합니다.

태광산업은 핵심 입지에 우량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0년부터 태광산업에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 혹은 개발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서울 성동구 연무장15길 11, 1개 블록 약 4,000평의 토지 및 건물은 태광산업의 소유입니다.
- 현재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인 성수동 연무장길의 주변 거래 시세를 고려할 때 **약 1조 1천억원**의 가치로 추산됩니다.
- 해당 성수동 부지에는 특별한 개발 없이 남아있는 예전 창고 건물에 몇몇 문화컨텐츠업체만이 입주해있습니다.



Source: 네이버지도, 트러스트자산운용

3. 성수동 연무장길 부지 등 부동산 자산의 매각·개발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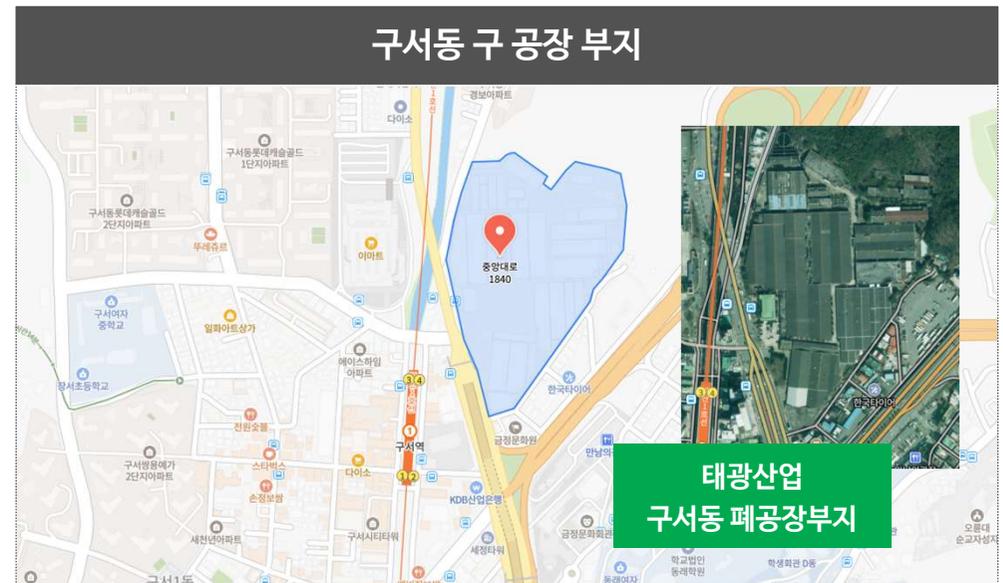


태광산업은 핵심 입지에 우량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0년부터 태광산업에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 혹은 개발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서울 중구 동호로 310에 위치한 장충동 본사 부지는 1980년 구 동북고등학교 시절부터 부지 활용에 변함이 없습니다. 운동장이었던 약 3,000평의 토지 중 대부분은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서울 중심부의 핵심 부지 중 대규모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태광산업 본사 부지가 유일합니다.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40 소재 15,000평의 구 구서동 공장 부지 역시 방치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부산 구서동 내 유일한 미개발 부지로 개발가치가 역시 매우 큼니다.



Source: 네이버지도, 파라다이스, 트러스톤자산운용



Source: 네이버지도, 트러스톤자산운용

3. 성수동 연무장길 부지 등 부동산 자산의 매각·개발을 제안합니다.



태광산업은 핵심 입지에 우량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0년부터 태광산업에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 혹은 개발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의 성수동 연무장길 부지는 투자부동산으로, 장충동 본사 부지 및 구서동 구 공장 부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K-IFRS에 의해 성수동 연무장길 부지, 장충동 본사 부지, 구서동 구 공장 부지는 모두 취득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태광산업의 유형자산 총액은 5,300억원, 투자부동산은 2,312억원이며, 투자부동산의 경우 태광산업이 2023년 공정가치 평가한 가액만 1조원에 달합니다.
- 성수동 부지만 포함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했을 때의 **PBR은 0.17배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유형자산인 본사 부지 및 공장 부지의 시가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유형자산의 시가까지 반영하면 **실질 PBR은 0.08배에 불과**합니다.



태광산업이 보유한 성수동 연무장길 부지 등 부동산 자산의 매각·개발을 제안합니다.

4. 보유 자사주 24% 중 20%를 소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자사주를 활용해야 한다는 태광산업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태광산업은 2004년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24.4%의 자사주를 아무런 목적 없이 보유해왔습니다. 그러다 2025년, 상법이 개정되고 자사주 의무소각이 논의되자 보유 자사주 전량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을 시도하였습니다.
- 태광산업이 보유한 현금 및 기타 자산이 충분하다는 당사의 지적에 대해, 태광산업은 자금이 부족하여 교환사채 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환사채 발행이 무산된 이후에도 애경산업의 인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PBR이 0.2배, 현금 1조 5천억원, 비영업용 부동산 1.1조원을 방치하고 있는 회사가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행태라 보기 어려우며, 이를 묵과할 주주도 없을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태광산업은 더 이상 자사주를 보유할 필요성도 목적도 없습니다.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보유 자사주 24.4% 중 20%를 소각할 것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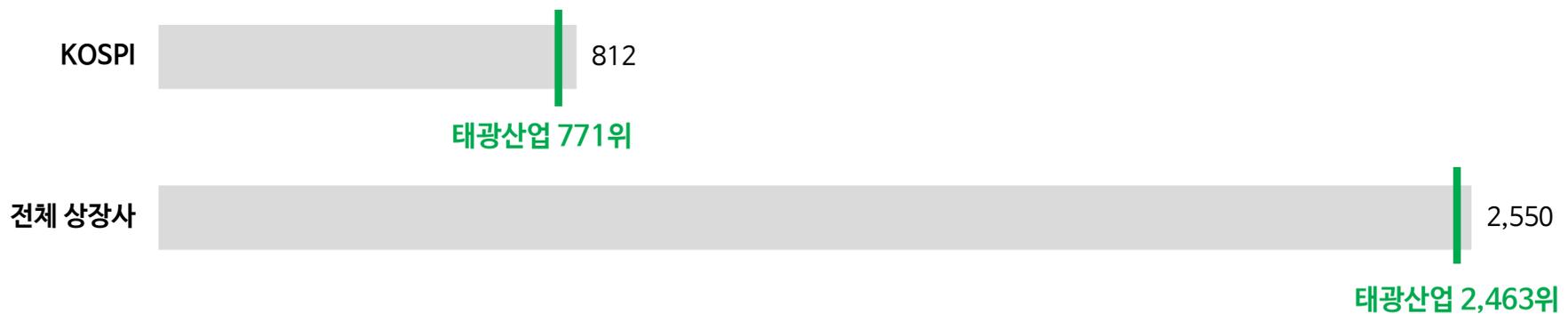
5. 태광산업의 기업가치제고계획 수립 및 발표를 제안합니다.



2026년 상반기 중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 당사는 지난 2025년 3월, 자기주식보고서 공시를 앞두고 태광산업의 독립이사회 및 이사회를 통해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독립이사들도 기업가치제고계획 수립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2025년 3월 13일, 돌연 성희용 대표이사가 사임하며 모든 논의가 무산되었습니다.
- 당사는 한국 자본시장의 저PBR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국내 최저 PBR, PBR 0.2배인 태광산업이 수립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태광산업의 PBR은 0.2배, 코스피 812개사 중 771위, 전체 상장사 2,550개사 중 2,463위입니다.



Note: BPS = 2025년 3분기 기준 자산총계 / 유통주식수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수)

Note2: PBR = 주가(기준일: 2026.02.11) / B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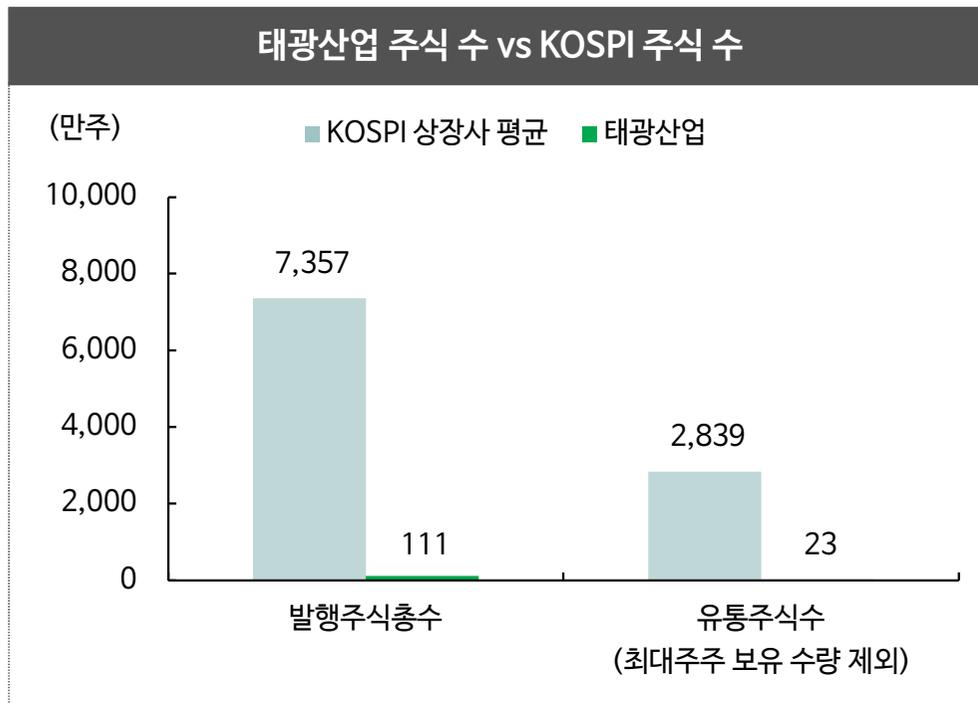
Source: Quantiwise, 트러스톤자산운용

6. 주식 유동성 제고를 위한 1대 50 액면분할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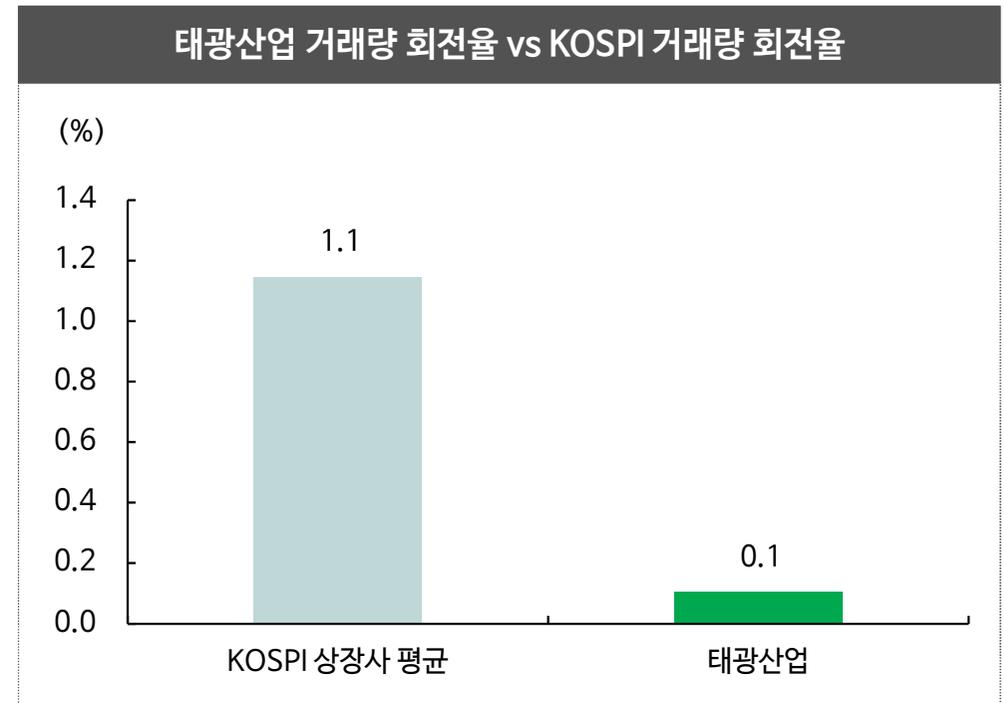


태광산업은 주식의 유동성이 극히 부족한 기업입니다.

- 태광산업의 발행주식총수는 1,113,400주, 유통주식수는 234,509주로, KOSPI 상장사 평균 발행주식총수 73,571,701주, 유통주식수 42,693,179주 대비 현저히 적습니다.
- 태광산업의 일평균 거래량회전율은 0.1%로, KOSPI 평균 1.15%, KOSPI 화학 업종 평균 1.0%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 이에 당사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제안하였으나, 당시 이호진 최대주주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Source: Quantiwise, 트러스톤자산운용



Source: Quantiwise, 트러스톤자산운용

본 자료는 당사가 특정 기업 및 관련 사안에 관하여 제언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 분석, 추정, 전망 및 의견은 작성 시점에 당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공개 자료 및 가정에 근거하였으나, 그 정확성·완전성·적시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 법률, 세무 등 전문적 자문 또는 특정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독자는 본 자료를 참고함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사용 또는 이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의 내용 및 의견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당사에 있으며, 출처 표기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변형·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금지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10(성수동1가) (04779)
Tel | 02 6308 0500 Fax | 02 6308 0687
www.trustonasset.com